■ 제주도의회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 “완전무상보육 경비 지원방향 개선 시급”

## “무상보육으로 부담은 줄었지만 체감도 낮아”
## ‘특성화비·특별활동비’ 등 실현 장애물 지적

21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상국기자

완전무상보육과 관련해 부모가 납부하는 필요경비 항목에 대한 지원방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보육 현장의 의견이 잇따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회보장특별위원회(위원장 현지홍)는 2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현재 무상보육 제도하에서 학부모 부담을 줄이며 보육 차별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전무상보육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무상보육제도는 2012년부터 아동 보육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 공공이 부담하며 보육 공공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이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등과 같은 부모필요경비로 인해 ‘완전한’ 무상보육이 실현됐다고 볼 수 없다는 측면이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무상보육’제도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필요경비(입학금,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특성화비용,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등 7개 항목) 부담 문제에 대한 접근을 통해 ‘완전무상보육’실현에 필요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손태주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완전무상보육의 취지에 맞게 타 지역 사례 검토를 통한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방향을 7개 항목 중에서 아침·저녁 급식비를 제외한 6개 항목 전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제주시 부모 모니터링단 부모 단원으로 활동했던 6살, 3살 남매를 양육하고 있는 학부모 오진미 씨는 “무상보육으로 보육료 부담은 줄었지만, 실제 부모들이 느끼는 체감은 무상교육이 아니다. 특성화비, 특별활동비와 같이 부모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부담이 완전한 무상보육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계선 제주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부장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공통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아가 어떤 유형의 기관에 다니는가에 따라 지원받는 내용과 비용이 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유보통합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 완전무상보육은 완전무상교육과 연동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조정순 늘해랑어린이집 원장은 “올해부터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무상보육의 실현으로 학부모부담인 기타필요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타시도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유보통합과 더불어 지원체계를 늘려 학부모 부담경감과 동시에 모든 아동에 동일한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 제주 공공주택 7000호 공급 구상 ‘본격’

## 도, 2027년까지 추진할 주거종합계획 변경 착수

정부의 전국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맞춰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역점 정책 구상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제주도는 제주의 미래 주거정책 비전과 목표가 담긴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민선8기 주요 주거 정책과 2027년까지 추진할 세부과제를 수립·반영하는 주거종합계획 변경에 착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2018년 주거기본법에 따라 도민 주거복지 증진과 주택 수준 및 주거환경 향상, 주택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세부 정책과제를 포함한 주거종합계획(2018~2027)을 수립했다. 하지만 주거기본법에 따라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5년간의 계획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현 시점에서 인구 및 가구 변화와 사회·경제적 여건, 주택시장 동향 등을 되살펴 주거종합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표본 3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특성, 주택 및 주거환경, 주택 마련, 주거비 부담 등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했다.

제주도는 주거종합계획 변경 수립을 위해 지난 15일 국토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이태윤기자

# “기상악화 시 심야비행 탄력적 허용”

## 김한규 의원 ‘공항소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폭설 등 기상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돼 통과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예외적 상황에 처한 승객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심야비행 통제시간(23시~익일 06시)에 긴급환자 이송과 같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착륙을 금지하되 기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이착륙하는 항공기는 국토부장관이 정한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제주의 폭설이 잦아지면서 항공기 전편 결항으로 수 만명의 승객들이 추가 체류하며 추가 비용을 지출하는 등 큰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데 있다.

김한규 의원은 “심야비행 통제를 준수하면서 기상 악화 등으로 인한 전편 결항 등이 발생할 경우 최소한의 이동권 보장차원에서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영석기자

## 문연문答에서

# 대통령 안의 ‘카르텔’

현 지 홍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카르텔(Kartell)’의 사전적 의미는 동일 업종의 기업들이 이윤의 증대를 노리고 자유 경쟁을 피하기 위한 협정을 맺는 것으로 형성되는 시장 독점의 연합 형태로 경제 용어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의 발언 “태양광 비리는 이권 카르텔”, “국민 약탈하는 이권 카르텔 맞서 개혁 실천해야”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카르텔이라는 단어는 주로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다.

파블로 에스코바르의 메데인 카르텔 예에서 보듯이 카르텔이든 그 무엇이든 국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초래한다면 그것은 개혁하고 혁파해야 할 대상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찰 출신 관직 장악**
**향후 인사 짐작 어려워**
**이쯤 되면 카르텔 아닌가**

다. 하지만 대통령의 대상과 우선순위를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다. 우리나라의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다. 전 국민이 다 아는 말이다. 관피아가 없어졌는가. 관피아로 인한 민관 유착은 고질적인 사회 문제의 하나다. 그런데도 고위 경제·금융 관료 출신인 모피아, 국토건설부 출신 건피아, 교육부 출신 교피아, 해수부 출신 해피아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관피아는 지금도 확장하고 있다. 이들이 카르텔이다.

대통령 친정인 검찰은 또 어떤가. 현 정부의 인사 라인은 모두 검찰 출신이 장악하고 있다. 인사를 추천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인사비서관, 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이끄는 한 장관까지 모두 검찰 출신이다. 한동훈 장관을 비롯해 장차관급만 13명이다. 이뿐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곳에까지 검찰 출신들이 20여 개 기관에 70여 명이나 들어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지 10여 개월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 정도라면 앞으로 4년여 동안 대통령실과 정부는 물론 산하기관의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이 얼마나 진출할지 짐작하기도 어렵다. 카르텔이라고 다 같은 카르텔이겠는가. 이쯤은 되어야 카르텔 아닌가.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이런 얘기가 있다.

그리스 7현인의 한 사람이며 아테네의 유명한 입법자인 솔론은 자신이 만드는 법에 대해, 정의를 실천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보다 더 이롭다는 것을 명백하게 만드는 방식으로서 시민들에게 알맞은 법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나카르시스라는 인물이 반박한다.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그 그물에 걸릴 만한 나약하고 가냘픈 이들만 붙잡고, 부와 권세가 있는 자들의 손아귀에서는 갈가리 찢길 것이라고.

요즘 상황을 보면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권력자인 대통령이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 아나카르시스라는 인물이 우려했던 그 일을 만만한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진짜 카르텔은 못 본 체하면서 말이다.

대통령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지, 불통, 독선, 독단으로 구성된 자신의 내부에 도사린 카르텔을 해체하는 것이다.

黃氏濟州道宗親會
定期總會

癸卯年 새해를 맞이하여 宗親 여러분의 健勝을 祈願하오며, 今番 **第30次 黃氏濟州道宗親會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갖으오니 많은 參席 부탁 드립니다.
(周邊 宗人에게도 널리 알리어 參席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다 음

1. 日 時 : **2023年 3月 25日(土) 午前 10:30**
2. 場 所 : **비원가든 3층 연회장**
(한라수목원 입구, ☎ 064-712-8899)
3. 參加會費 : 宗親 1人當 20,000원(家族同伴 歡迎)
※ 個別 通知는 省略함.

■ 連絡處 : 會 長 **黃太文** 010-2689-9007
事務局長 **黃丞贊** 010-6798-7755

**黃氏濟州道宗親會**
**會長 黃太文**

주택·아파트·상가 빌딩
리모델링의 새로운 변화!
시설물·금속·창호·도장·방수
조경시설물·전문건설업
제주시 서광로 256. 4층
컴/건축디자인
010-4324-7080
F:064)723-1045 / E:ehdrb0064@hanmail.net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제)州(주)리모델링
辛(신)一(일)祚(조)
직원 수시모집
누수탐지·방수
누수탐지 : 가스식, 청진기식 수도배관 녹물청소
신축 / 증축 / 리모델링 / 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 / 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 / 지붕개량 /
옥상방수 / 페인트공사 / 창문 / 도어문 / 대문 교체
붙박이장 / 싱크대 / 신발장 / 도배 / 장판 / 몰딩 시공 / 징크 공사
유품 정리해드립니다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는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

그랜드 보청기
입춘대길(入春大吉) 물가안정 大 이벤트
보급형, 경제형, 고급형, 플래티넘 中 선택
그랜드보청기 히트브랜드 대상!!
충전형 귓속형 보청기
충전형 귀걸이 보청기
'국민건강을 위한 상생협력제품 판매'
제주시/서귀포시 무료 방문 A/S 및 무료 청력검사
삼춘들 혼저 전화 주십서! 기다렴수다!
◁사무실 방문시 추가 할인쿠폰 증정▷
비충전식 보청기 도내 최저가 지향
건강보험 청각장애인 지원금 및 어르신보청기 지원금 안내
NAVER에 그랜드보청기 를 검색해 주세요
☎ 064-725-9275
※그랜드보청기 전용 주차장 (무료주차)
서사라 사거리 북동쪽
시청방면 1층 삼겹구이 서광로 225 2층
서사라 사거리 그랜드보청기 제주시버스터미널